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의료사태가 명현(瞑眩) 현상이라니

박 재 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표를 시작으로 의대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수혜 확대와 소외된 지방 의료의 복구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의사들은 자신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고 가며 의논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의료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대립 국면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국민들만 죽을 노릇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이하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

이번 의료 사태를 주역(周易)의 관점에서 보면 불통과 반목이다. 불통의 괘는 비(否)괘이고, 갈등의 괘는 송(訟)괘이다. 불통의 비(否)는 하늘과 땅이 서로 반목하여 꽉 막혀 있는 형상이고 갈등의 송(訟)은 하늘과 물이 서로 등을 돌리며 소송하고 있는 형상이다. 불통은 인간사에서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일이다(匪人·비인).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사는 중간(中·중)에 그만두면 좋지만(吉·길), 끝까지 계속하면(終·종)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나쁜(凶·흉) 일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국은 끝나지 않는다. 꽉 막혀 있는(窒·질) 형상이니 중간에 중재자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혹자는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도 필요하니 병을 낫기 위한 명현(瞑眩) 현상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현(瞑眩)은 한의학에서 약을 투약한 후 병이 완전히 낫기 전에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의료사태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갈등이나 반목이라는 명현 현상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명현 현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힘없고 위중한 국민들이란 것이다.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길을 찾는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프면 의료계 파업이라도 치료를 못 받을 확률은 없다. 그러니 의료 파국의 심각성이 정책자들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을 리가 없다. 명현 현상을 운운하며 한 번은 겪어야 할 부작용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명현 현상은 검증된 의료 치료도 아니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되는 잘못된 믿음이다. '만약에 약을 먹고 명현의 부작용이 없다면(藥不瞑眩·약불명현), 그 병은 낫지 못할 것이다(厥疾不瘳·궐질불추)'. 이 말은 원래 '서경'에 나오는 말로 맹자가 인용해서 사용한 말이다. 좋은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어떤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명현 현상이란 약리작용은 없다.

초유의 의료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프지 않는 것뿐이라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아프지 않는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 명현 현상이니 참으라는 정부의 무대책은 더욱 어이가 없다. 애초부터 전략과 협상도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여 발표했던 당사자들은 빠지고 의료 당사자인 국민들과 의사들과의 갈등만 깊어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송사(訟)는 끝까지 가면 흉(凶)한 일이다. 불통(否·비)과 송사(訟·송)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안타까운(吝·린) 일이다.

종교칼럼

국수 한 젓가락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고정관념은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나의 오래된 고정관념 중에 일요일엔 목욕탕 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있다. 일요일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일요일, 매우 피곤했던 나의 몸은 알량한 고정관념의 잔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사우나로 향했다. 의외로 평일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긴 사우나는 어릴 적 아버지 손에 끌려 가던 목욕탕이 아니긴 하다.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니 오후 5시를 조금 넘은 시각, 거리는 한산하다. '일요일 저녁 거리가 원래 이렇게 한산했던가?' 의아한 마음으로 텅빈 거리 건너편을 보니 마침 국수집이 있다. 적당히 출출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국수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정말 아무도 없다. 언뜻 보기에도 테이블이 12개는 족히 넘어 보이는 제법 넓은 홀인데 텅 비었다. '일요일이라 손님이 없나?' 일요일이라 그러려니 내멋대로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 국수를 시켰다.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을 느끼며 국수 한 젓가락을 집어먹었다. 그런데… 한 젓가락을 먹고 나니 국수가 반밖에 남질 않았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리며 자세히 보니 두 젓가락이면 끝날 판이다. 나름 진지하게 꽤 신경써서 아껴 먹었지만 세 젓가락을 넘기지 못했다. 커다란 놋쇠그릇에 흥건하게 담긴 국물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국수가 적은 건지 내 부족한 소견으로는 알 수 없었다.

거리는 여전히 한산하다. 다시 본 한산한 거리는 아까와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아무래도 일요일이니까 그럴거라 우격다짐하듯 생각할 것이 아닌 모양이다. 국수가 그토록 적은 것도 요즘 시절의 말못할 사연이 있지 싶다. 가게 주인이라고 그렇게 조금만 주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세계의 식량창고라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을 넘겼다. 올해는 과일값도 정확하게 두배가 올랐다. 어떻게든 코로나19만 잘 버티면 세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거라 생각했지만 버티고 버틴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다.

아마도 호시절이었으면, 주인은 내가 건넨 국수값을 딸래미 학원비에 보탤 수 있었을게다. 덕분에 학원 원장은 밀리지 않고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건물주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금을 받은 은행은 다시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 자금을 확보한 기업은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 최신 핸드폰을 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된 나는 이 참에 신형 핸드폰을 장만하게 되었을 것이다.

고작 7천원 밖에 하지 않는, 몇 젓가락 되지도 않는 국수다. 나는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하겠다는 거창하고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국수를 먹지 않았다. 그냥 국수가 먹고 싶었을 뿐이다. 그뿐이다. 그런데도 내가 별 생각없이 먹은 한 그릇의 국수로 인해 세상은 활발하게 굴러간다. 복잡하게 뒤엉킨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이 세상을 굴리고 있다.

가난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가난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인 가난도 있다. 가난이 구조적이라 함은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세상이 항상, 일상적으로 나에게 가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로운 삶은 내게 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국수 한 젓가락 이야기를 하자면 턱없이 오른 각종 원자재값, 임대료 때문에 국수집 사장님은 딸래미 학원비는 둘째 치고 당장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다. 학원 원장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건물주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또다른 빚을 내야 할 상황이다. 돈이 돌지 않아 은행 살림은 팍팍해지고, 연구개발에 힘쓰지 못하는 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해 부도의 위기에 내몰린다.

자고 나니 선진국이란 말이 실감나기도 전에 가난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다. 내 앞에 놓인 한 그릇의 국수가 지금 우리 실정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가난은 가장 비참한 질병"이라고 했다. 구조적 가난이 창궐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곧 사회적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제왕학을 두루 익힌 왕자 출신 답게 부처님은 구조적인 가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예로부터 빈자를 돌보고 구조적인 가난을 몰아내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은 무능한 정부를 뽑은 과보로 국수 한 젓가락 먹으면서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

기 고

클래식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세계가 아니다

김 승 일
조선대 명예교수

이외수의 '절대강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꽃꽂이 선생님이 다섯 살 난 어린이에게 동자꽃을 보여주면서 묻는다. "이게 무슨 꽃인지 아니?" 그러자 이 어린이가 반문한다. "그냥 이쁘다는 것만 알면 안 되나요?" 맞다. 그냥 그 꽃의 아름다움에 '참 이쁘구나'하면 되는 것을, 선생님은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에 이름을 묻는다. 이름이야 알든 모르든 그 꽃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면 되는 것이지 꽃 이름을 아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어쩌면 그 꽃이 왜 아름다운지 알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클래식이 그렇다. 들으며 그냥 '아름답구나' 하면 된다. 그렇게 느끼고 감동하면 충분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클래식은 어렵다 외면해 버린다.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예술이라 하겠지? 그렇다면 뭔가 예술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뭐지? 나는 모르겠는걸? 혹시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러니 나는 클래식 음치인가봐, 아! 어려워 하며 마음을 닫아버린다.

하지만 클래식은 원래 태생적 본성이 감응(感應)에서 출발해 감응으로 소통하는, 말하자면 음악가와 감상자 사이에 서로 '필(feel)'로 소통하는, 감성에 바탕을 둔 예술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꽃 이름 모르고 그냥 아름답구나 하면 안되나요?" 하듯이 감응만으로도 충분한 세계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소통'이고, 예술가의 감정이 감상자에게 '전염' 또는 '감염'되는 세계라고 했다. 무엇을 감염시키고 무엇이 어떻게 전염되고 소통되는 것인지 그 '무엇'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무언가를 밝히고 알아내고 규명하는 일은 예술이, 음악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알아내야 하고 밝혀낼 일이 있다면 음악보다는 언어로 소통할 때 더욱 더 정확히 이루어질 일이다. 음악은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며 밝혀낼 내용이 따로 없다. 그래서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예술의 소통은 상상력으로 감염되면서 상상으로 도취, 공감하는 공명(共鳴)의 세계이다. 알아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의문을 가져야 하고 명쾌한 대답을 찾아내야 비로소 이르게 되는 세계가 아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으로 전염되고 상상으로 공감하면서 도취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술의 세계이다. 그러한 상상의 세계는 어차피 추상의 세계이고 상상의 도취이기에 미지(未知)의 경지이기도 하다.

클래식 감상자들 중에는 아름다운 음악에 도취되다가도 가끔씩 전혀 필이 오지 않는 대목을 만날 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대목이 나오지?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 듣는걸까? 그래서 클래식이 어렵다는 걸까? 하며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건 아는 게 없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다. 클래식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예쁘고 아름다운 선율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얼른 '필'이 오지 않는 구절도 당연히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건 단지 낯설어 쉽게 감염되지 못하고 익숙해지지 않아 쉽게 '필'이 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름다운 꽃도 그 꽃나무 전체가 아름다운 꽃송이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듯이 클래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아름답구나 하는, 쉽게 감동으로 감염되는 예쁜 음악만일 수는 없다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음악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서서히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클래식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세계가 아니다. 상상하고, 상상으로 소통하고, 상상으로 전염되고, 상상으로 공감하는 추상의 세계이다. 그래서 클래식의 세계는 알아낼 일도 없으니 모를 일도 없다.

社 說

5·18 암매장 확인 후 중앙공원 아파트 지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부지에 옛 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 301 정보부대로 1980년 5·18 당시 상무대에 주둔하면서 민간인으로 위장해 시민들 사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5·18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역할을 했다.

서구 쌍촌동 일대에 있는 301 정보부대 건물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측이 건물 해체계획서를 서구청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7개 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다. 우리가 이 부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5·18 당시 이 일대가 전투교육병과사령부(전교사) 관할 구역이자 군사통제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대에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전교사 소속 상무대 백일사격장에선 5·18 당시 숨진 14명의 시신이 가매장 상태로 발견됐었다.

5·18재단 측은 5·18 당시 계엄군이 시신을 상무대로 가져갔다는 목격담이 퍼져 있는데다 해당 지역은 전교사가 운영하는 군사통제지역 중 상무대와 가장 가까운 야산이라는 점을 들어 암매장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여 동안 암매장 조사를 했지만 이곳은 아예 포함되지 않아 이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암매장 여부는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쟁점의 하나로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더라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다행히 문제의 군부대가 발견된 곳은 건물 해체계획서만 제출된 상태인 만큼 본격적인 공사 전에 철저하게 암매장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설혹 암매장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계기관은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선조사, 후 공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경기침체에 전남도 쌀값 직격탄 맞나

올 들어 쌀값(80㎏)이 처음으로 18만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남 농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겹쳐 음식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쌀 소비 감소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쌀 한 가마(80㎏)당 20만원을 보장하기는 커녕 쌀값안정대책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쌀 한 가마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19만432원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80㎏에 21만222원을 찍은 뒤 한 달만에 20만원선이 무너졌고,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25일 19만원대 턱 밑까지 주저앉았다.

산지 쌀값이 평년 가격(19만1022원)보다 0.3% 하락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오는 5일께면 18만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쌀값이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한 이유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때문이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 욕구가 위축되면서 쌀 소비가 많은 외식업체들의 폐업률(21.5%)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쌀값 20만원선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쌀 목표가격을 유지하는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도 매년 15만~20만t의 벼가 초과 생산되고, 지난해에는 시장격리도 하지 않아 쌀값을 20만원대로 떠받치겠다는 의지가 없다.

쌀값 하락이 이어지면 전남 농가들의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만큼 선제적인 대책을 통한 가격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산물 가격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無 等 鼓

물가 다이어트

비만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개인의 잘못된 생활양식이 원인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물론 과식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이자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발표했다. 비만은 한 개인의 신체 문제를 넘어 세계인 대다수가 앓고 있는 현대병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비만을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사회 문제이자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한 만찬'의 저자로 유명한 프랑스 농공학자 피에르 베일의 주장이다. 그는 비만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환경에 있음을 설득력있는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즉 다이어트는 개인이 칼로리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사이에서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 피마족은 백인 군대에 발견되면서 식민지가 됐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게 된 피마족은 구호물품이 있어 고생을 하지 않아도 굶지 않게 됐다. 그러나 식량이 충분한 환경 변화는 성인의 75%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가 되는 현대 문명병을 가져 왔다.

이제 음식재료에서 비만의 원인을 찾아보자. 풀을 먹고 자란 소와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살코기는 같을까?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살코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오메가3는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게 막는 물질이다. 반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의 살코기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데, 이는 지방세포를 키우는 성분이다. 심지어 야채도 햇볕아래 자란 것과 비닐하우스에서 인공비료로 키운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쯤이면 다이어트는 개인이 식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비만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환경과 식재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가가 1년여 이상 상승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 값은 그야말로 금값이다. 고물가 탓에 제대로 먹지 못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유머까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채희종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